

‘꼬마장사’ 부모 없는 설움 뒤집고 金땀다



‘꼬마장사’ 이 건(오른쪽)이 지난달 31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초등부 씨름 장사급 우승을 차지한 뒤 황중훈 코치(왼쪽)와 자리를 함께 했다.

소년체전 장사급 2연패 장흥관산초 이건 코치와 4년 째 생활... “천하장사 꼭 될것”

부모 없는 아픔을 딛고 초등부 모래판을 평정한 ‘꼬마 천하장사’가 화제다. 지난달 31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소년체전 초등부 씨름 장사급에서 우승한 장흥관산초 이 건(6학년)이 그 주인공. 이 날의 우승은 대회 2연패인데, 올 전국대회 두번째 금메달이어서 기쁨은 더욱 컸다. 특히 남들처럼 부모들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구슬땀을 흘린 끝에 얻은 금메달이기에 더욱 값진 승리였다. 이 건은 경기 후 우승 소식을 부모 대신 서울에 사는 작은어머니 한테 전했다. “작은어머니가 ‘정말 잘했다’고 축하해 줬어요.” 승리의 기쁨에 한창 들떠있을 만 한데도 어린 선수답지 않게 너무나 담담하게 우승 소식을 밝혔다. 지금 이 건의 곁엔 함께 열싸우고 기뻐해 줄 엄마·아빠가 없기에 작은어머니에게 전화

를 할 것이다. 이 건은 관산중 씨름팀 숙소에서 황중훈(27) 코치와 함께 4년째 생활하고 있다. 이 건은 네 살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 버렸고, 4년 전엔 아버지마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개구쟁이처럼 자라야 할 때 이 건은 할머니·누나와 함께 배고픔을 참아가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난해에는 할머니마저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작은아버지가 할머니와 누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다. 혼자 남은 외로움을 이 건은 모래판에서 살바를 굳게 잡으며 떨쳐냈다. 이 건은 4년전 황 코치의 눈에 띄어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당시 몸무게 60kg이었던 이 건을 보고 잘 키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지가 두 달전 이 건을 씨름선수로 키

워내겠다고 설득해 어렵사리 허락을 받아냈다. 그때부터 황 코치는 이 건을 관산중 숙소에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며 씨름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건 또한 중학교 선배들과 같이 하루 3시간씩 훈련하면서 체력과 기술을 익혀왔다. 그간 생활체육대회 등서 입상도 몇번 했지만 지난해 소년체전서 우승함으로써 그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배지기와 빗장걸이 등 기술은 뛰어나지만 신장이 체중에 비해 크지 않은 게 아쉬운 부분이다. 이러한 이 건을 볼 때 마다 황 코치는 보약이라도 지어주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기 일췌였다. 황 코치는 “건이는 춤·노래도 좋아하고 성격도 활달하다”며 “가끔 무표정한 얼굴로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나라도 부모의 역할을 해주고 싶는데 쉽지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꼬마장사’ 이 건이 경제적 걱정이 씨름에만 열중해 ‘천하장사’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으면...” 황 코치의 간절한 소망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9분 해질 19시 42분 달돋이 14시 32분 달질 01시 34분

소나기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광주	구름 많음	17/28°C
목포	흐림	17/24°C
여수	흐림	17/22°C
완도	구름 많음	17/25°C
구례	흐리고 한때 비	16/28°C
해남	구름 많음	16/25°C
장흥	흐리고 한때 비	16/25°C
고흥	흐림	16/25°C
순천	흐림	16/28°C
영광	맑은 뒤 흐림	17/25°C
진도	구름 많음	16/24°C
전주	맑은 뒤 흐림	17/28°C
남원	맑은 뒤 흐림	15/28°C
옥산도	흐림	16/21°C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7/25	16/28	17/28	16/26	17/27	17/28



“영산강 오염원은 광주천 등 지천”

환경단체 13곳 조사, BOD 극락교 부근 가장 높아

영산강 상류지역에 있는 광주천과 함평천 등 지천의 수질 상태가 본류에 비해 오염 정도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영산강까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영산강운하백지화 광주·전남 시민행동이 발표한 ‘영산강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산강과 광주천이 만나는 지점 인근인 극락교 부근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5.0ppm으로 관측지점 13곳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삼포천과 함평천이 합류되는 지점의 BOD는 각각 3.6ppm과 3.5ppm을 나타냈다. 영산강은 특히 무분별한 둔치 경작에 의한 비점오염원(양식장·경작지 등)과 같이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 유입과 하수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비점오염원 부하량이 37.4%로 4대강(평균 28.8%)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영산강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것 또한 수질오염 원인의 한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영산강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6.4%로 전국 평균 87.1% 보다 9.7%p나 낮은 수치다.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

소년체전 참가비 유용 의혹 광주교육청, 진상조사 착수

광주 S중학교가 소년체전에 광주대표로 출전한 여자 배구팀의 참가비를 유용하려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본보 1일자 7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과 시체육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참가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원금

220만원 중 53만 4천원은 훈련비로 지출됐으며, 나머지 176만 5천원은 미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년체전 참가비는 숙식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 경비인 만큼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미 사용액은 환수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조만간 영수증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해 미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별장이야? 화장실이야?

광주 금당산 산책로 명품 공중화장실 완공

광주시 서구 금당산 산책로에 ‘명품 화장실’이 조성됐다. 1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중앙동 원광대 한방병원 입구 금당산 산책로에 예산 1억6천 만 원을 들여 친환경 인테리어를 갖춘 43㎡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지난 4월 중순 착공한 지 40일 만에 완공했다.



광주시 서구 중앙동 원광대 한방병원 입구 금당산 산책로에 조성된 43㎡ 규모의 공중화장실.

이 공중화장실은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화장실 입구엔 구정호보문구 등이 담긴 가로 1.8m, 세로 25cm 크기의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으며 내부에는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와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 냉

난방 기능도 포함돼 있다. 특히 목재재질로 계단을 만들어 어린이와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기존 산책로와 연결, 등산객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전주형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제 집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전남대생들 봉하마을서 농활

전남대 학생들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의 농활을 추진한다. 1일 전남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최근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한 학생이 ‘봉하마을로’라는 제목으로 봉하마을 농활을 제안해온에 따라 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봉하마을 농활을 제안한 학생은 “봉하마을을 어르신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1년 농사를 제쳐놓고 장례를 도왔다”며 “전남대 학생들이 봉하마을로 농활을 가 모내기·마을정리를 함께 해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 학생은 또 “198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노 전 대통령은 5·18민중항쟁 진실을 알리며 신군부를 질타했고 2002년 광주에서 노동이 시작돼 제 16대 대통령의 밑거름이 됐다”며 “2009년 광주에서 제 2의 노동과 사랑을 이어가고 있음을 봉하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논의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뒤, 봉하마을 농민회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총학생회는 일단 1학기 학사일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내번째 주부터 농활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무자격자 고용 등 불법

전남 5개 약국 적발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팔아온 전남지역 5개 약국을 비롯한 79개 약국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에서 적발됐다. 식약청은 1일 약사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목포시 연산동의 M약국 등 79개 약국을 관할 시·도에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전남지역 5개 약국은 모두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적발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한민국 보청기의 지존성

세기보청기

세계최고의 보청기 성능을 가진 보청기입니다. 보청기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 개발된 보청기입니다. 보청기 지존성입니다.

대한민국 보청기 지존성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m

1588-8419 / 060-222-0100